

미국 마감 상황

2009.01.14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13일 뉴욕증시는 지난 11월 무역적자가 급감 하였고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을 강조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였지만 알코아 등 미국 기업실적 우려로 인하여 혼조세로 마감.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5.41p(0.30%) 하락한 8,448.56을 기록. 30종목 중 16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알코아가 각각 6.8%, 5.1%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1.53p(0.18%) 상승한 871.79에 장을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67p(0.50%) 상승한 1,546.46에 마감.

이날 증시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가 지난 4분기 19억1천만달러에 이르는 순손실을 기록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 알코아의 부진한 실적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우려를 증폭.

하지만 11월 미국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160억달러 줄어든 40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은행권 부실자산 인수 등 양적완화 정책을 강조하여 혼조세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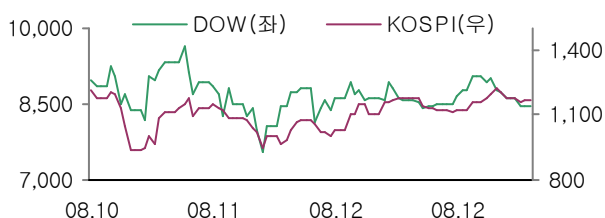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원유 감산을 발표하여 6일만에 반등에 성공. 한때 배럴당 40.55달러까지 급등하였으나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가 재 부각되며 상승폭을 반환.

4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일 가량 앞당긴 JP모건은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해석되며 주가가 5%넘게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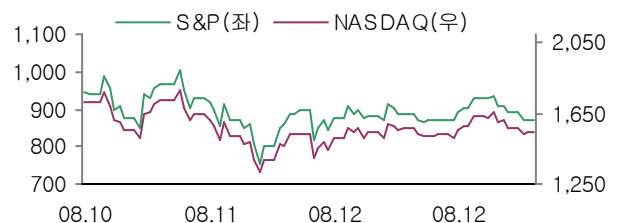
바클레이스가 GM의 부진한 분기실적을 이유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GM의 주가는 5% 넘게 하락.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448.56	-0.30	-6.28	-2.54	-2.10	-10.00	-33.88
S&P(좌)	871.79	0.18	-6.73	-2.12	-0.90	-13.11	-38.44
NASDAQ(우)	1,546.46	0.50	-6.41	-0.27	0.37	-16.15	-37.60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